

특용 밀원수종 개발 현장설명회

지난 6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회의실에서 특용 밀원수종 개발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아까시나무 등 주요 밀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체 밀원 확보가 시급한 현재, 헛개나무 등 육성품종의 밀원 조성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후 현지 적용 상황을 위한 자리였다.

주제를 발표하고 시험지를 답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설명회는 주된 논점은 우수 밀원수 품종 개발과 기능성 분석(김세현 국립산림과학원), 친환경 양봉관리(이명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 양봉산업의 현재와 미래 (조상균 한국양봉농협), 특화 사업의 현장활용 사례 (전창우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였다.

한국 양봉협회, 한국 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하고 국립산림과학원 및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 유관기관, 양봉농가 등이 참석한 이번 현장 설명회의 큰 목적은 경쟁력 있는 양봉산업의 기반 구축이었다.

전기현 한국양봉협회 회장은 이 설명회에서 밀원수 개발에 대한 책임감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덧붙여 4년만의 흉작 끝에 찾아온 풍년에 반가움을 표하며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설명회를 통하여 밀원수종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기능성벌꿀 생산과 양봉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양봉인 모두가 앞장서야함을 강조했다.



특용 밀원수종 개발 현장설명회 축사를 하는 전기현 회장